

2022-05-09 (2022-18호)

5월 09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아슬아슬한 환율... 美 물가지표 변곡점 될까

서울, 5월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 통화 긴축 우려 강화와 이에 따른 달러 강제 확산 여부에 따라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에도 위·아래 진폭을 키우는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50-1,285원이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를 소화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던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에도 변동성에 취약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통화 긴축에 대한 시장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 주요 연준 인사들은 예정된 일정을 통해 시장에 더욱 선명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후속 반응이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나오는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는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전망에 따르면 4월 CPI 상승률은 전월비 +0.2%, 전년비 +8.1%로 지난 3월 +1.2%, +8.5%보다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물가 피크아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미국 물가지표를 확인한 이후 얼어붙었던 시장 심리가 완화하면서 달러/원도 일방적인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통화 긴축 강도와 속도가 다른 중앙은행과 차별화되는 국면에서 강달러 모멘텀이 약화되기 힘든 데다 특히 고유가와 중국발 공급망 악화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유지될 가능성에 때문에 달러/원 반등 탄력이 재차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금주에 나오는 중국의 4월 수출입 및 물가지표 결과에 따른 중국 증시와 위안화 반응이 원화에 있어서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로이터 전망에 따르면 중국 4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2% 증가해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달러/원은 글로벌 달러와 위안 등 글로벌 외환시장과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번 주도 환율은 어디로 될 지 모르는 럭비공 장세를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레벨 부담과 당국 경계에도 연고점을 새로 쓸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시장 참가자들이 꼽는 달러/원 다음 저항선은 1,285원 선이고, 이 레벨을 넘으면 1,300원이다.

국내 발표 예정 주요 지표로는 3월 국제수지(잠정), 4월 고용 동향, 4월 수출입물가지수 등이 있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5월9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이임식 (11:00)
- ⊙ KDI 경제동향(2022. 5)(12:00)
- ⊙ 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6:00)

5월10일(화)

- ⊙ 한국은행: 2022년 3월 국제수지(잠정)(08:00)
- ⊙ 통계청: 2022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 ⊙ 금융감독원: 원장 임원회의(15:00)

5월11일(수)

- ⊙ 통계청: 2022년 4월 고용동향(08:00)
- ⊙ 기획재정부: 2022년 4월 고용동향 분석(09:00)
- ⊙ 금융위원회: '22.4월 가계대출 동향(12:00)
- ⊙ 금융감독원: '22.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12:00)
- ⊙ 금융감독원: '22.4월 가계대출 동향(12:00)
- ⊙ 한국은행: 2022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5월12일(목)

- ⊙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회의(10:30)
- ⊙ 기획재정부: 제22회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11:30)
- ⊙ KDI 현안분석 '대외 불확실성이 환율 및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12:00)
- ⊙ 기획재정부: 제25회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16:3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9:00)
- ⊙ 한국은행: 총재 한중일,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화상회의(9:40)
- ⊙ 한국은행: 2022년 4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2022년 3월 통화 및 유동성(12:00)
- ⊙ 통계청: 2022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12:00)

5월13일(금)

- ⊙ 한국은행: 2022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09:30)
- ⊙ 기획재정부: 2022년 5월 최근 경제동향(10:00)
- ⊙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11:00)
- ⊙ 기획재정부: '22.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실시 여부 및 발행계획(17: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단위	이전수치
5월9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최종	4월		Index (diffusion)	50.5
5월9일		중국	수출	4월		Percent	14.7%
5월9일		중국	수입	4월		Percent	-0.1%
5월9일		중국	무역수지	4월		USD	47.38B
5월9일	17:30	유로존	셴틱스지수	5월		Index (diffusion)	-18.0
5월9일	23:00	미국	고용추이	4월		Index	120.56
5월9일	23:00	미국	도매재고 수정치 MM	3월	2.3%	Percent	2.3%
5월9일	23:00	미국	도매판매 MM	3월		Percent	1.7%
5월10일	08:30	일본	가계지출 MM	3월		Percent	-2.8%
5월10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4월		Index	93.20
5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4월		Percent	9.7%
5월10-17일		중국	위안화 신규대출	4월		CNY	3,130.0B
5월10-17일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4월		Percent	25.60%
5월11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4월		USD	1,356.1B
5월11일	10:30	중국	PPI YY	4월		Percent	8.3%
5월11일	10:30	중국	CPI YY	4월		Percent	1.5%
5월11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3월		Index	-0.1
5월11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3월		Index	-1.2
5월11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5월2일주간		Index	351.8
5월11일	21:30	미국	CPI MM, SA	4월	0.2%	Percent	1.2%
5월12일	03:00	미국	연방예산	4월		USD	-193.00B
5월12일	08:50	일본	은행대출	4월		Percent	0.5%
5월12일	08:50	일본	경상수지	3월		JPY	1,648.3B
5월12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5월2일주간		Person	200k
5월12일	21:30	미국	PPI MM	4월	0.5%	Percent	1.4%
5월13일	18:00	유로존	산업생산 MM	3월	-1.0%	Percent	0.7%
5월13일	21:30	미국	수입물가	4월	0.6%	Percent	2.6%
5월13일	21:30	미국	수출물가	4월		Percent	4.5%
5월13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5월	63.8	Index	65.2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5월9일(월)

- ⊙ BOJ, 3월17~18일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공개 (오전 8시50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연은 금융시장 컨퍼런스 환영사 (오후 9시45분)
- ⊙ 휴장국가: 홍콩

5월10일(화)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NABE/독일 분데스뱅크 국제경제 심포지엄 기조연설 (오후 8시40 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연은 금융시장 컨퍼런스 연설 (오후 9시30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세실 카운티 상공회의소 연설 (오후 10시15분)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미네소타 경제클럽 ·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대담 주제 (11일 오전 2시)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연은 금융시장 컨퍼런스 참석 (오후 11일 오전 4시)

5월11일(수)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30주년 행사 연설 (오후 5시)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잭슨빌 세계 문제 위원회 연설 (12일 오전 1시)

5월12일(목)

- ⊙ BOJ, 4월27~28일 통화정책회의 주요 의견 요약 공개 (오전 8시50분)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소피에 민치 전 샌프란시스코 연은 시애틀 지부장 주제 대담 참석 (13일 오전 5시)

5월13일(금)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에너지 가격의 인플레이션 영향 관련 연설 (자정)

▶ 금주 세계 5대 이슈

- ⊙ 중앙은행들 긴축과 경제 둔화 우려
- ⊙ 미국 4월 인플레이션
- ⊙ 중국 4월 수출입
- ⊙ 대러시아 제재와 유가
- ⊙ 글로벌 M&A 시장 자금조달 문제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칼럼) - 5월 금리인상 5부 능선 넘은 금통위... 최대 변수는?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5월 6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물가 억제를 위해 200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0bp 올리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결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에선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후반대까지 올라선 데다 달러/원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어 금통위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금통위의 결정을 예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 예상된 연준 빅 스텝 금리 인상에도 안도 못하는 시장

연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인 50bp 인상하고, 6월부터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더 검토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다음 달 75bp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매파의 기수 제임스 블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달 50bp 금리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파월 의장의 발언 여파로 랠리를 펼쳤던 글로벌 시장은 하루 만에 분위기를 돌렸다.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에 최우선순위를 뒤편에 두는 연준 정책결정자들이 '리스크 온' 장세를 결코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채권, 주식시장으로 경계매물이 쏟아졌고 달러지수가 급등한 것이다.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지표가 현재 시장의 예상대로 피크아웃(peak-out)하지 않을 경우 연준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매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 통제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치솟는 물가·위협적인 환율 상승, 금통위 선택 압박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 데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하면서 당장 금통위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시장의 전망대로 연준이 6월과 7월 회의에서 50bp씩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9월과 11월, 12월에 25bp를 추가로 올리면 현재 1.50%인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역전은 곧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금통위가 지난해 8월 이후 이미 네 차례나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한 데다 한-미 금리 역전은 양국간 펀더멘탈 차이를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큰 만큼 추가 인상의 시급성은 미국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금통위가 4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상황에서 5월에 추가로 조정에 나설 경우 급격한 긴축 속도에 대한 우려로 경기둔화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당초 한은 내에서도 5월 기준금리 동결을 유력하게 보는 시각이 강했지만 4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는 2008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인 4.8%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치솟는 달러/원 환율도 추가 금리 인상에 명분을 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재료가 유로화, 엔화에 직격탄을 날리며 달러지수를 끌어올린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5월 FOMC 회의 이후 드러나 시장의 취약한 심리와 변동성을 감안할 달러/원 환율이 저항선인 1,285원을 뚫고 1,300원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월 인상 시그널 '아직'..경기 판단 중요

한은은 지난 3일 소비자물가 발표 직후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한은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 발표 직후에도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데 물가지표 발표 당일 이같은 회의를 개최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부 한은 관계자는 당시 이례적인 물가상황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시장에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려 한 것이라고 사후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5월 물가 상황 점검회의 개최를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한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아직 5월 금통위 회의까지 3주나 남아 있는 시점에서 예단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분명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었지만 이번 회의는 딱히 의도를 가지고 열린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통화정책 경로나 대내외 물가 등이 시장에 충분한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면 금통위 회의 전까지 추가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더라도 금리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변수는 향후 경기 방향에 대한 평가다. 물가의 경우 당장 하향 안정화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한은 관계자들은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금통위가 이미 네 차례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만큼 현시점부터는 향후 경기 둔화 압력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를 평가하는 게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리라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4월 물가가 이 정도로 나오지 않았다면 5월에 고민할 일은 없었을 텐데 이번에 고민을 키우는 숫자가 나온 건 사실"이라며 "관건은 물가가 언제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가, 성장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얼마나 둔화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부터는 한 번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이전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률이 뒤로 갈수록 둔화되리라는 건 모두가 예상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편집 유춘식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5월6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72.7	-1.3%	-6.6%	-8.6%	유로	1.0553	0.1%	-7.2%	-6.9%
100엔 대비	972.7	0.0%	6.2%	+1.8%	엔	130.58	-0.6%	-11.9%	-10.3%
유로 대비	1,340.3	-0.6%	0.9%	-1.9%	위안	6.6651	-0.8%	-4.7%	+2.7%
위안 대비	190.51	0.4%	-1.8%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2,899.37	-0.2%	-9.5%	+18.7%
코스피	2,644.51	-1.9%	-11.2%	+3.6%	나스닥	12,144.66	-1.5%	-22.4%	+21.4%
코스닥	884.22	-2.3%	-14.5%	+6.8%	S&P500	4,123.34	-0.2%	-13.5%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36.90	-4.1%	-14.8%	-4.9%
국고채 3Y	3.146%	18.8bp	134.8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369%	19.7bp	135.8bp	+67.6bp	미국채 2Y	2.730%	0.0bp	200.0bp	+61.0bp
국고채10Y	3.431%	18.9bp	118.1bp	+53.7bp	미국채 10Y	3.140%	20.0bp	163.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110.61	6.2%	46.6%	+55.8%	한국 5Y	40.6bp	0.5bp	18.6bp	-0.7bp
금(현물)	1,883.59	-0.7%	3.0%	-3.6%	일본 5Y	20.2bp	1.5bp	2.5bp	+2.1bp
TR상품지수	3,965.33	-1.1%	18.8%	+24.6%	중국 5Y	76.2bp	-3.0bp	35.0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